

템플 스테이 투어리즘과 관련한 승려의 영적 노동

야나타 가오리 (와카야마대학)

1. 서론

최근 십수 년 동안 중국, 한국, 일본 등의 불교 국가에서 템플 스테이 투어리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Kaplan, 2010). 템플 스테이 투어리즘이란 사원의 숙박 시설에 숙박하는 투어리즘을 가리키며, 숙박자는 승려와 함께 명상과 의례, 자연과 문화 체험을 한다(Jian, Ryan & Zhang, 2018). 템플 스테이 투어리즘의 특징은 숙박 숙박을 단순한 불교 수행이 아닌 영성(Spirituality), 건강, 행복 추구의 기회로 강조한데에 있다(Kim, 2017).

템플 스테이 투어리즘의 번성은 숙박과 지역사회의 경제적 이익, 포교 기회의 증가도 함께 가져왔다(OECD, 2008; Wong, McIntosh & Ryan, 2013). 반면, 템플 스테이 투어리즘은 문화적인 요소가 강하며, 표교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지적과 숙박자의 배려 부족으로 인한 숙박 환경 악화, 승려 역할의 다양화와 수행 시간 단축이라는 악영향도 지적되어 왔다(Kaplan, 2010; Wong, McIntosh & Ryan, 2013). 이처럼 템플 스테이 투어리즘의 영향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승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한정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템플 스테이가 승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영적 노동의 관점에서 탐구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와카야마현에 있는 진언 밀교(眞言密敎)의 성지 고야산(高野山)의 숙박을 사례로 들겠다. 조사 방법은 숙박 홈페이지 분석과 승려 인터뷰로 진행한다.

2. 선행 문헌 리뷰

2.1 이론적 구조

영적 노동이란 노동자의 영성이 조직에 의해 상품화, 성문화(成文化), 관리되는 것을 가리키는 개념이다(McGuire, 2010). 예를 들어 Seventh-day Adventist라는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기숙학교의 사례를 보면, 일반 학교와 동일하게 다양한 과목을 지도하면서 학생을 교단의 가치관에 따라 사회화시키는 것을 상품화하여 학생과 보호자에게 광고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일하는 교사와 직원은 복장과 식사, 휴일 활동에 이르기까지 교단이 규정하는 영성에 따라 생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교사나 직원 중에는 이러한 규정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스스로의 영성과 교단의 영성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된다. 또한 교단과 동료에게 주의를 받거나 인사이동, 감봉 등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McGuire, 2010). 이처럼 영적 노동은 노동자의 삶과 가치관의 상품화, 성문화 관리를 의미하며 노동자의 일에 대한 관여 정도와 만족도, 나아가서는 조직의 생산성과 창조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때문에 조직은 노동자의 영성 관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추세다. 또한 이 연구에서 다루는 영성은 다음 3가지를 중요한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로 개인적인 신앙, 가치관, 행동 규범. 두 번째로 일의 의미와 목적의 탐구. 세 번째로는 개인으로서의 일체감과 타인과의 일체감이다. 또한 영성은 제도 종교와 호환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제도 종교와 같이 체계화되어있지 않은, 보다 개인적인 가치관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개념이다(Krishnakumar & Neck, 2002; Mitroff & Denton, 1999).

조직의 영성 관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조직이 노동자가 가지고 있

는 영성을 자유롭게 조직에 들이게끔 허용하면 노동자의 영성을 충족시키며 일에 대한 관여와 생산성이 향상되는 경우가 존재한다(Krishnakumar & Neck, 2002). 반면, 조직이 영성을 규정하고 노동자를 그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앞서 예로 든 Seventh-day Adventist 기숙학교와 이번에 다룬 고야산의 템플 스테이 투어리즘 모두 이에 해당한다. 노동자와 조직의 영성이 일치하는 경우, 노동자는 일에 대한 관여도와 생산성이 높아진다. 반면, 노동자와 조직의 영성에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노동자는 조직과 동료에게 관리를 받게 될 뿐 아니라, 스스로의 영성을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바꿔야 할 필요가 생긴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의 정체성(identity)이나 삶의 방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Millian, Czaplewski & Ferguson, 2003; McGuire, 2010). 이처럼 영성과 노동은 상당히 깊은 관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려의 생활을 노동으로 간주하는 일이 일종의 금기처럼 여겨져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템플 스테이 투어리즘이라는 관광 상품 제공에 승려가 관계되어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승려의 생활을 노동으로 인식할 필요성을 지적할 수 있다.

2.2 고야산의 영적 노동

본 연구에서는 와카야마현 북부에 위치한 진언 밀교의 성지 고야산에서의 템플 스테이 투어리즘을 사례로 들겠다. 고야산은 816년 홍법대사 구카이(弘法大師空海)에 의해 개창되어 현재도 총 본산 금강봉사(金剛峯寺, 곤고부지)를 비롯한 117의 사원이 존재한다. 117개 사원 중, 52개 사원이 숙박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관광객도 숙박이 가능하다. 또 고야산은 2004년 ‘기이 산지의 영지와 참배길’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이때부터 고야산의 숙박은 수행 체험과 외국인 유치를 위한 선전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된다(아키야마, 2018). 그 결과 2004년에는 10,530명이었던 외국인 숙박객 수가 2019년에는 108,993명까지 급격히 증가했으며(와카야마현, 2004-2019), 관광청은 고야산 숙박을 템플 스테이 투어리즘의 성공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관광청, 2019).

한편 2018년에는 숙박에서 일하는 40대 승려가 과로를 이유로 숙박을 제소하는 일이 보도되었다. 고야산은 2015년 개창 1200년을 맞이해 예년보다 훨씬 많은 숙박객을 받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승려들은 매일 아침 5시부터 근무를 시작해 11시에 취침하는 근무를 한 달 이상 지속해 왔으며, 우울증이 악화되었다(The Japan Times, 2018, May). 이 사건은 승려의 생활이 노동인가 수행인가에 대한 숙박과 승려의 가치관의 차이를 시사하고 있다. 같은 해에 고야산의 승려가 서양 숙박객과 숙박 예약 사이트에서 언쟁을 벌인 일도 보도된 바 있다. 서양 숙박객이 남긴 “사찰 음식 맛이 ‘이상했다.’”, “승려가 절의 전통을 설명해주지 않는다”라는 후기에 승려가 서양인만을 특별 취급하지는 않는다고 하며 거세게 반론하며 언쟁이 일어났다. 이를 한 저널리스트가 트위터에 올리자 리트윗 15,000회, 35,000명의 좋아요를 받아 The Guardian에도 기사가 실리게 되었다(Hurst, D., 2018, May). 이 사건은 승려와 숙박객 사이에서 승려의 역할이 수행인지 관광 대응인지에 대한 기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처럼 고야산의 숙박은 템플 스테이 투어리즘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반면, 승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고야산의 템플 스테이 투어리즘을 영적 노동의 사례로 드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3. 조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고야산의 템플 스테이 투어리즘을 사례로 들어 승려의 영적 노동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1)고야산 숙박에서 어떤 영성이 상품화되고 있는

가. (2)승려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가. (3) 승려의 영성과 숙박, 숙박객의 기대에 간극이 발생했을 때 그 간극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라는 세 가지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1번 문제에 대해서는 고야산 숙박의 홈페이지, 나머지 2개의 문제는 승려의 반구조화 인터뷰를 통해 각각 분석한다. 본 연구는 현재 조사, 분석을 진행하고 있어 우선 검토중인 조사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다.

먼저 홈페이지 분석에 대해 설명하겠다. 현재 고야산에는 52채의 숙박이 있다. 이중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숙박은 33채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이 33개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을 추출하여 텍스트 분석과 주제 분석에 따라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승려 인터뷰 조사에 대해 설명하겠다. 홈페이지 분석을 통해 템플 스테이 투어리즘에 힘을 쏟고 있는 숙박을 추정하여 반구조화 인터뷰 조사를 의뢰한다. 주요 질문 항목은 승려가 되고자 한 동기, 승려가 되어 하고 싶었던 일, 고야산의 승려 생활과 기대했던 승려 생활의 차이, 그 차이에 대한 대처법이다. 인터뷰 조사는 답변자의 답변에 신규성이 없어질 때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4. 조사 결과

현 시점에서 조사, 분석이 완료되지 않았기에 분석의 경과를 발표하겠다.

4.1 영성의 상품화

우선, 숙박이 어떤 영성을 상품화하고 있는지, 숙박 홈페이지 분석을 통해 연구한 내용을 설명하겠다. 홈페이지 기재 항목은 주로 일반 숙박 시설과 동일한 내용과 숙박 특유의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 숙박 시설과 동일한 내용으로는 숙박할 방과 시설 사양, 요금, 체크인아웃 시간과 관련한 내용을 들 수 있겠다. 반면 숙박 특유의 내용으로는 숙박의 기원, 본존, 사찰 요리, 사경과 명상 등의 수행 체험, 공양, 납골, 기도 안내가 게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숙박의 독자적 정보를 자세히 보면 수행승에 의한 접객, 살생하지 않는 요리, 감사하는 마음의 중요성, 건강한 심신 만들기 등 저마다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다. 앞으로 이러한 가치관을 요소별로 나누어 연구할 예정이다.

4.2 영성의 성문화, 관리

다음으로 영성이 어떻게 성문화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승려와의 인터뷰 조사를 통해 연구한 내용을 설명하겠다. 사례1은 승려, 숙박, 숙박객의 영성이 일치한 경우다. 숙박객이 적은 숙박에서는 승려가 숙박객과 충분히 신불 체험을 공유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승려의 업무 만족도와 재방문객 증가 등, 승려와 숙박, 숙박객에게 모두 좋은 영향이 미치게 된다. 반면 사례2는 승려와 숙박의 영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다. 한 승려는 숙박에서 자신이 생각한 만큼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는 이유로 퇴직하여 스스로 사원을 열었다고 한다. 사례3은 승려가 자신의 영성을 발휘하고 있는 사례다. 한 숙박은 숙련된 승려가 없어 젊은 승려가 스스로 공부 모임을 기획하거나, 접객 방법을 제안,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자주성을 살릴 수 있는 형태가 승려의 충실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까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하였다. 향후 인터뷰를 늘려가면서 템플 스테이 투어리즘과 관련된 고야산의 승려가 영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5.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템플 스테이 투어리즘이 승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영적 노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에서 성공 사례로 다뤄지는 고야산의 템플 스테이 투어리즘을 예로 들어 승려가 어떻게 생활하며 노동하고 갈등을 풀어나가는지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진행되면 템플 스테이 투어리즘에 있어서 승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매니지먼트를 향상하여 템플 스테이 투어리즘을 지속 가능한 관광 콘텐츠로 만들어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번역책임자:김나정)